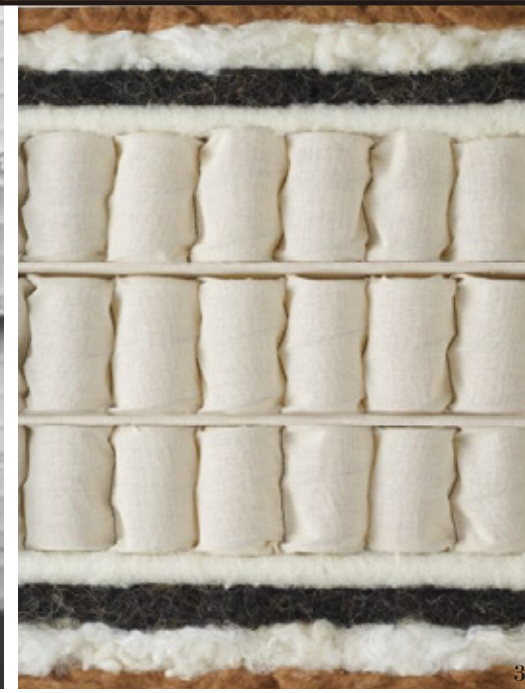


ULTIMATE LUXURY MASTERPIECE

최상의 수면 환경을 위해 엄선한 천연 소재와 수작업만을 고수하는 장인정신. 125년의 역사를 이어온 바이스프링 침대는 럭셔리를 규정하는 요소를 한데 모아 완성한 최상의 결과물이다.

침대는 잘 몰라도 ‘포켓 스프링’이라는 말은 익숙할 터. 이 ‘혁신’의 출발점에는 아내를 향한 한 남자의 ‘순정’이 담겨 있다. 1899년, 영국의 엔지니어였던 제임스 마셜(James Marshall)은 아픈 아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매트리스를 고안했다. 당시 매트리스는 스프링이 서로 연결된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그는 각각의 스프링을 독립된 천 주머니(포켓)에 담은 방식을 개발했다. 진동 전달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교한 지지력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였다. 아내를 향한 그의 애정 어린 발명은 오늘날 하이엔드 침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스프링(Vispring)은 1901년 마셜이 설립한 침대 브랜드다. 브랜드 이름의 ‘Vi’는 스프링의 탄성을 결정짓는 6회전(Roman Numeral VI)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지지력의 상징이 되었다. 바이스프링은 설립 초기부터 타이타닉호 등 초호화 여객선에 매트리스를 공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영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명품 침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2년과 2024년에 영국 왕실이 수여하는 ‘Queen’s Award’와 ‘King’s Award’를 각각 수상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공인받았다. 바이스프링은 이른바 ‘영국 왕실의 침대’로 불린다. 실제로 영국



1 매트리스 측면과 내부 스프링을 천 번이 넘는 바느질로 촘촘히 연결하는 ‘핸드 사이드 스티칭’. 2 각각의 스프링을 독립된 천 주머니(포켓)에 담은 ‘포켓 스프링’을 처음 개발한 곳이 바로 바이스프링이다. 3.4 바이스프링은 100% 천연 소재만 사용한다. 전 세계에서 엄선한 양모와 말총, 대나무, 실크 등 최상급 천연 소재를 지층처럼 쌓아 올려 제작한다.

왕실에서는 수대째 이 브랜드의 침대를 사용해오고 있다. 1981년 다이애나 스펜서가 윌리엄 왕자를 임신했을 때 찰스 3세가 바이스프링 침대를 선물한 것은 유명한 일화. 세월이 흘러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도 신혼 침대로 바이스프링을 선택하며 그 인연을 이어갔다.

MADE BY CRAFTSMANSHIP

125년 동안 바이스프링이 굳건히 지켜온 신념은 장인정신에 뿌리를 둔다. 모든 침대는 주문에 따라 제작하며, 자칫 비효율적으로 보일 만큼 수작업을 고집한다. 영국 플리머스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은 1901년 출시 당시와 동일한 전통 기법으로 장인의 손을 거쳐 완성된다. 매트리스 한 개를 제작하는 데만 8시간 이상을 쏟을 정도. 특히 매트리스 측면과 내부 스프링을 촘촘히 연결하는 ‘핸드 사이드 스티칭(Hand Side Stitching)’은 바이스프링의 정수로 꼽힌다. 천 번이 넘는 바느질이 오가는 이 작업은 침대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별도의 지지대 없이도 매트리스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바이스프링의 독보적 품질은 장인들의 ‘집요함’이 뒤따라기에 가능한 일이다.

ONLY NATURAL MATERIALS

바이스프링은 소재를 고르는 기준도 엄격하다. 침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스프링은 우주선을 제작할 때 쓰는 ‘버나듐 스틸(vanadium steel)’을 이용해 자체 제작한다. 이 강철로 침대 스프링을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직 바이스프링만이 보유하고 있다. 또 스프링을 공급미터당 940개까지 높이고, 천연 칼리

코 코튼으로 감싼 포켓 스프링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역시 바이스프링이 유일하다. 내장재도 예사롭지 않다. 100% 천연 소재로, 라텍스나 합성 소재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튼튼한 북유럽산 목재로 프레임 짜고, 그 위로 전 세계에서 엄선한 양모와 말총, 대나무, 실크 등 최상급 천연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린다. 각 소재가 수행하는 역할은 명확하다. 가령 100% 영국산 울은 수면 중 발생하는 땀을 흡수하고, 최상급 오스트리아 무스버거(Moosburger) 말총은 특유의 탄성으로 유연하게 신체를 받쳐주는 ‘천연 스프링’ 역할을 한다. 여기에 캐시미어와 실크를 더해 촉감과 보온성을 섬세하게 조율한다. ‘수면의 품질은 곧 소재의 품질에서 비롯된다’는 바이스프링만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결과다.

TIMELESS LUXURY

바이스프링의 ‘가치’는 단순히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럭셔리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자연 소재 중심의 제조 철학은 2023년과 2024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이라는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바이스프링은 시대를 초월한 ‘타임리스(timeless)’를 지향한다. 실제 영국에서는 바이스프링 침대를 구매하면 대를 이어 사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 업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30년 보증 서비스’는 제품 수명과 품질에 대한 바이스프링의 자신감을 대변한다. 바이스프링은 인피니 청담 플래그십,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및 판교점의 바이스프링 매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매장을 방문하면 최상의 숙면 환경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